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이종재 프란치스코, 전은숙 글라라	봉헌금: \$ 241
금주 미사 복사: 유지원 카타리나	교무금: \$ 470
다음 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매일미사책 및 성경책 판매: \$ 105
금주 미사 해설: 윤지희 데레사	캠프장 보증금 회수: \$150
다음 주 미사 해설: 성인영 마리스텔라	-----
	합계 : \$ 921
반 주: 조은영 베다, 강동현	봉헌봉사: 김태진 하상 바오로
회 계: 황성필 요한,	다음주 봉헌봉사: 유지원 카타리나
친교실 정리: 3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목 주 기 도	매주 미사 20분전 (오후 4시 40분 부터 4시 55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5 월 31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c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5 월 24 일 저녁 7:00, 장소: 페이스북 클럽 참고)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Nielsen Tennis Stadium,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성령 강림 대축일과 관련된 교리 상식 2 가지 - 성령칠은과 성령의 9 가지 열매 - 성령칠은(聖靈七恩): 성령강림은 교회의 시작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위해 계속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화은총으로 오늘날에도 계속 은사를 베풀십니다. 성령의 그 여러 가지 도움을 흔히 성령 칠은(聖靈七恩)이라고 합니다. ■ 슬기(지혜):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과 현세의 일시적인 사항을 구별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 통찰(깨달음):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되도록 깊이 깨닫게 하는 은사입니다. ■ 의견(일깨움): 마땅히 행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는 은사입니다. ■ 지식(삶):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는 은사입니다. ■ 용기(굳셈): 영원한 생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쓰는 은사입니다. ■ 효경(공경):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 경외심(두려워함): 매사 하느님을 거스를까 염려하는 은사입니다. - 성령의 9 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외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오피스

club.catholic.or.kr/thecccm

Facebook 클럽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2013년 5월 18일

성령 강림 대축일

<제 1 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화답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23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142 봉헌: 219 성체: 147 파견: 493



성령의 불통이라도 떨어졌으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통과 불신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정책입안자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충돌로 사상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 역시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언어를 국어로 사용하면서도 대화는커녕 전쟁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소통과 화합의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의 날 하늘에서 거센 바람 소리가 나더니,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위엄에 대해 전하는 말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자기 모국어로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작은 불꽃들이 이루어내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령강림을 통해 바벨탑의 사건(창세 11,1-9)과 정반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던 인간들은 결국 서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불꽃은 서로 다른 말을 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하느님의 위엄을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1 코린 12,13)라고 말하듯이 이제 성령 안에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또한 평화의 대축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수 부활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요한 20,19)고 합니다. 폐쇄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안으로 들어오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두 번이나 인사하신 다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흠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창세 2,7 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문을 열고 나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엄과 평화를 전하는 일꾼으로 거듭납니다. 불통과 불신, 그리고 전쟁의 위험으로 답답하고 불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소통과 화합, 그리고 평화의 성령께서 내려오심이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려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불통과 불신, 그리고 반평화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성령의 불통이라도 절실한 오늘입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 공지사항

- 봄 야유회가 드디어 내일 오전 11 시부터 Elver Park (1250 McKenna Blvd, Madison) 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식사, 게임 그리고 운동을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건진 성사 안내
일시: 2013 년 7 월 20 일 (토) 5 시
장소: St.Paul
집전: 인천교구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세례 성사 이후 건진 성사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올해의 건진 성사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진 성사 대상자는 추후 공지될 예정인 건진 성사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교육 안내
7 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7 월 교리반의 세례식은 오는 12 월 25 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성경책 (2 권: 1 권 \$50) 과 매일 미사 책 (\$5)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황성필 회계 담당 사목위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 시부터 2 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녀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세요(전화 : 770 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독서단 모집(계속) >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마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교적 정리 (계속) >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임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성가대 모집 (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rdw@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5월31일 (금) 저녁 8 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